

전통불교문화원 월결산 첫 흑자

지난해 6월 개원한 태화산 전통 불교문화원이 1년여 만에 월(月) 결산 첫 흑자를 달성했다. 전통불교문화원은 “지난 8월 연수 수입이 처음으로 1억 원을 달성하여 처음으로 흑자를 이뤘다”면서 “향후 수입구조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전통 불교문화원 발전 로드맵 수립을 바탕으로 총력을 기울인 결과 월 결산 첫 흑자를 달성한 것이다.

전통불교문화원은 본부장 헤오스님이 지난해 11월 취임한 이후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취임 당시 헤오스님은 “중단 최초의 연수교육기관을 운영해야 하니 책임감이 무겁다”며 “외부 단체의 연수교육을 적극 유치해 수익을 창출하고 자체적인 수행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종단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전통불교

문화원 사용 결과를 살펴보면 모두 129개 단체에서 7735명이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출액은 3억7144만 4500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불교계 기관 이용은 57%이고, 일반 기업 및 단체는 23%에 달하고 있다. 참선프로그램은 16%, 개인 이용은 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불교문화원은 불자뿐 아니라 불교문화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6박7일 과정의 참선입문과정과 1박2일 과정의 사찰 김치만들기 과정을 개설한 결과 300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통불교문화원은 주식회사 에듀

그램을 마케팅 △영업이 성사될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상조 제공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전통불교문화원은 겨울 방학기간에 ‘청소년 명상리더쉽 캠프’와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에듀맥스는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에 다양한 연수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교육 업계에서는 상위권에 있다.

전통불교문화원은 “에듀맥스와 협력을 바탕으로 중단 연수 이외에 정부 기관과 기업을 상대로 한 연수 마케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상호 장점을 바탕으로 공직자 리더

십프로그램과 청소년 심성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월 결산 첫 흑자의 여세를 몰아 전통불교문화원이 정부와 기업 연수를 적극 유치할 경우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운영의 토대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불교계 기관 57%, 일반 기업·단체 23% 이용 8월,개원 1년여 만에 ‘안정적 운영 토대’ 구축

에듀맥스와 업무협약...“연수마케팅 적극 추진”

박희승 전통불교문화원 총괄부장은 “종립학교와 불교계 사회복지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시설 이용을 요청한 결과 호응이 있었다”면서 “불교계 기관뿐 아니라 일반 사회 기업 및 단체, 그리고 일반 학교의 각종 연수 및 행사를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맥스(대표이사 김병진)와 지난 4일 연수프로그램 개발과 연수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공무원·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주)에듀맥스는 문화원을 협력 연수원으로 관

촉 활동 △전통불교문화원은 (주) 에듀맥스의 공무원·기업 교육프로

승가복지 특보 초격스님 임명



파주 보광사 주지 초격스님(사진)이 승가복지 담당 총무원장 특별보좌관에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초격스님을 종책특보에 임명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승가복지는 많은 종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33대 집행부의 주요사업이기도 한 만큼 내년 중에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호법부장 상운스님도 “승려노후복지 기금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매진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초격스님은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였다”며 “승려 노후복지에 종단 차원에서 관심을 두고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스님들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지난 13일 봉은사 부주지 진화스님(오른쪽에서 네번째)과 신도 대표들이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 부위원장 현웅스님(교육원장)에게 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승가교육 진흥 기금 3000만원 佛靑 지도자 장학금 5000만원

봉은사, 조계종·동국대에 전달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스님)는 지난 13일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에 승가교육진흥기금 3000만원, 동국대(이사장 정련스님)에 불교청년지도자육성 장학금 50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을 대신해 이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방문한 봉은사 부주지 진화스님은 승가교육진흥위원회 부위원장 현웅스님(조계종 교육원장)에게 승가교육진흥기금으로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진화스님은 동국대를 방문해 동국대 이사장 정련스님에게 불교청년지도자육성 장학금 5000만원을 건넸다.

한편 봉은사는 지난 2008년부터 중앙승가대에 1억 5000여만 원의 장학금뿐만 아니라 봉은학술지원금을 통해 매년 5000만원을 중앙승가대 학술연구 활동기금으로 수여하고 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신임 위원 인사를 받고 환담했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노력해 달라”

총무원장 스님, 10·27 심의위원들에 당부 이성규 서울경찰청장도 신임 인사차 예방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들이 지난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예방은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제14차 회의에 앞서 신임 위원 인사차 이뤄진 것으로, 이용길 국방부 차관, 우무석 국가보훈처 차장, 윤원호 전 국회의원, 조남진 호원대 교수, 허남오 전 병무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이

용길 신임 국방부 차관에게 축하인사를 전한 뒤, “10·27법난 명예회복은 종단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위원장 스님을 도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용길 국방부 차관은 “위원장 스님과 심의위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3일 이성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취임 인사차 한국불교역사

문화기념관을 방문해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부 개신교인들의 훼손행위에 대해 경찰과 정부의 관심과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그동안 불교계는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개신교의 훼손행위를 인내하고 포용해왔지만 최근 대구 기독교계가 조직적으로 불교를 폄훼하고 있다”고 우려의 뜻을 전하며 “정부와 경찰 차원에서 불교 폄훼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훼손과 종교간 분쟁에 대해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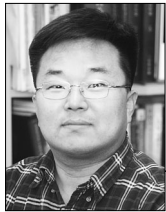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 격려하는 총무원장 스님의 걸음이 계속되고 있다. 아름다운동행 이사장이기도 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취임이후 많은 이웃을 만나 위로했다.

투병 중인 ‘직지 대모’ 박병선 박사의 병문안을 비롯해 서호노인종합복지관, 용산참사 유가족, 이주노동자, 해명보육원, 구세군 서울후생원, 승가원 장애아동, 연꽃마을, 의정부 교도소 등을 찾았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고 쪼개어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것이다. 종교가 다르다고 방문 일정에서 빠지는 법이 없다. 구세군 서울후생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어려운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종단 대표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이웃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다.

매달 1~2차례씩 꾸준히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총무원장 스님의 움직임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특별한 시기에만 찾아가는 ‘전시성 방문’이 아니라는 점에 가장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총무원장 스님의 이같은 행보가 ‘입지는 법이 없다. 구세군 서울후생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어려운

나오고 있다.

총무원장 스님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직접 살펴본다는 점도 소독이다. 앞으로 불교와 종단이 해야 할 역할 가운데 하나가 우리 사회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다. 총무원장 스님이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불교와 종단의 대사회적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총무원장 스님의 걸음이 멈추지 않고 앞으로 계속된다면, 한국불교와 종단에 대한 대사회적 위상도 함께 올라갈 것이다.

승가대학 교과목 교수 연찬회 개최

종단 교육발전에 깊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사부대중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6일 교구본사주지 회의에서 “승가대학 교과과정 및 교과목 개편(안)”을 의결한 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에서는 개편되는 정규 교과목별 교육목표 및 주요 내용을 담은 강의계획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승가대학에서 향후 학인을 지도하실 교수님들을 모시고 교과목별 강의계획에 대한 공유와 토론을 진행하고자 연찬회를 마련하였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가대학 교과목 교수 연찬회 일정

일 정	교과과정	내 용
9월 28일(화)	한문불전	석문의범, 대승기신론, 금강경, 삼국유사, 원각경, 육조단경, 선가귀감
9월 30일(목)	대승불교	대승불교 개론, 대승경론 이해, 대승불교철학Ⅰ(유가유식·반야중관), 대승불교철학Ⅱ(천태·화엄), 대승불교철학Ⅲ(밀교·정토), 대승불교실천론
10월 5일(화)	선불교	선학 개론, 선종사, 선수행론, 선어록, 선전이해, 한국선사상사, 선과 현대사회, 참선지도방법론
10월 7일(목)	초기불교(일반불교)	부처님의 생애, 불교학 개론, 초기불교 이해, 아비달마의 이해, 초기불전 강독
10월 21일(목)	계율과 불교윤리	계율학개론, 초기승단의 불교윤리, 대승보살계, 불교제도사, 현대사회의 실천불교윤리

• 참석 대상 및 장소

- 참석대상 : - 현재 기본교육기관에 재직하고 계신 교수사
- 교과목 예비 강사(현재 재직 중인 승가대학의 개편안 신청 여부와 상관 없음/ 현재 특정 교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것과 무관함)
- 시간 및 장소: 매회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 기념관 2층 회의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